



# 웃음과 눈물로 버무린 역사현장

## 제주 4·3 항쟁 다룬 영화 '지슬...' 잔잔한 인기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감자를 먹을 때면 가슴 한켠이 아련해질 듯하다. 적어도 영화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2'을 본 사람들은. '지슬'은 '감자'를 뜻하는 제주 방언이다. 영화 속에서 지슬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다. '죽음'을 앞둔 순박한 사람들은 어두워

진 세계 30여개 영화제에서 수상했던 '퐁파리' 관객도 1000명을 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흥행 스코어다. 개봉과 함께 오벌 감독의 관객과 대화, 인디언 수니의 지슬 응원 콘서트 등을 진행했던 광주극장은 4일부터 상영회차를 3회로 늘렸다.

리는 것도 특징이다. 1948년 겨울, '해안선 5km 밖 모든 사람들을 폭도로 간주한다'는 미군정 소령의 내용이 화면에 흐르며 영화가 시작된다.

영화는 영문도 모르는 채 피난길에 올라 동굴에서 하루 하루를 버티는 동네 사람들과, '빨갱이'라면서 치를 떨며 야수처럼 변해버린 군인들의 일상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준다.

3만명이 죽임을 당한 처절한 사건을 다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한없이 무겁지않은 이유. 웃음과 눈물이 버무려진 작품이다. 무엇보다 감정의 과잉을 강요하지 않는 적당한 거리두기가 오히려 깊은 울림을 준다.

제주의 모습을 잡아낸 장면들은 인상에 강하게 남는다.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오벌감독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2억 5000만원이 투입된 '지슬'은 제주 사람들이 만든, 제주 영화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오벌 감독은 제주 이야기를 담은 '이어도', '어이그, 저 깃짓', '뽕' 등을 만들어왔다. 영화에서 제주인 역할을 맡은 배우들 역시 오벌 감독과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자라리 연구소'(자라리는 제주방언으로 '쓸모없는 짓거리'라는 뜻이다) 사람들이다.

'지슬'은 지난 1월 세계 최고 권위의 독립영화제인 미국 선댄스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받으며 작품성도 인정받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생사 오가는 순간 감자로 주고 받는 인간에 문클

## 3주째 7만 관객 동원...광주극장·CGV 터미널 상영

컵한 동굴에서 나눠먹으며 공포를 이기고, 영문도 모른 채 사람들을 죽여야하는 어린 군인들은 지슬을 나누며 고통을 이긴다. 또 죽어가는 어머니 끝까지 간직했던 지슬은 살아있는 이들을 먹여살린다. 제주 4·3 항쟁을 다룬 영화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 2'가 잔잔한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3월 1일 제주도 2개 상영관에서 먼저 개봉한 '지슬'은 21일 전국 개봉한 후 3일까지 7만 1000여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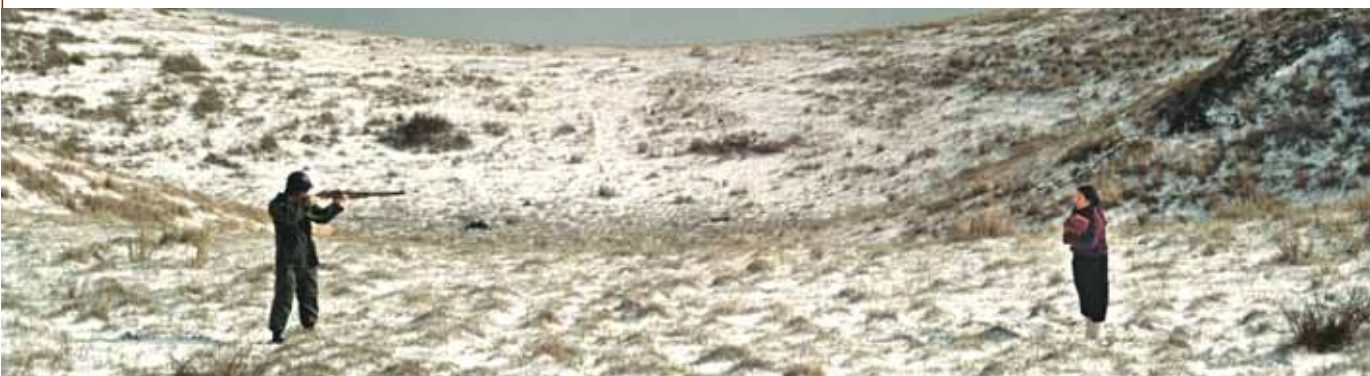
광주에서도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4일까지 광주극장을 다녀간 관객은 1200여명. 독립영화 가운데 지난해 최다 관객을 동원했던 웅산참사 관련 다큐 '두개의 문'이 모두 2000여명을 동원했고,

관객층도 다양하다. 가족 단위 관객들이 눈에 많이 띄고, 반복 관람하는 이들도 많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생생한 현대사의 현장을 만날 수 있는 영화라는 점에서 학교측에서 관람을 독려하고 있다. 광주여고·동신여고생들이 다녀갔고, 광주여고와 대성여고는 다음 주 단체 관람을 할 예정이다.

CGV 터미널점에서도 '지슬'을 만날 수 있다. CGV는 5관(117석)을 다양성영화를 상영하는 무비 플라자관으로 지정, 현재 '지슬'과 레오 카락스의 '홀리 모터스', 키이라 나이틀리 주연의 '안나 카레니나'를 상영중이다.

영화는 흑백으로 상영된다. 제주 방언들이 슬하에 쏟아져 상영 내내 자막이 깔



# 빛과 함께한 60년 세월

우제길 개인전 17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추상화가 우제길(72)은 '빛의 화가'다. 캔버스를 오가는 빛과 그 빛들이 만들어내는 단층,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색인 오방색으로 채색한 작품들이 그를 자연스럽게 빛의 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추상화가로 만들었다.

한 달 전 광주 작업실을 방문했었다. 전시를 앞두고 한창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그와 그의 작품 위로 창문을 통해 쏟아져 내린 빛을 보고 인상적인 느낌을 받았다. 한국 추상화단의 1.5세대로 고회를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청년과 다름 없는 열정으로 작품들을 그려내고 있는 모습도 가슴에 남았다.

한국의 전통과 정신을 현대적으로 승화시켜 서양미술과 다른 독창성을 펼치고 있는 우제길 화백이 6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층 전시실에서 '빛으로 그려온 예도'를 주제로 76번째 개인전을 연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신작과 시대별 대표작을 통해 지난 60여년 가까운 시간 작가로서의 기록과 화업을 총 정리한다. 화실에서 작업 과정을 담은 영상 등도 선보인다.

그는 '빛의 도시 광주화풍'을 완성하고 이어가면서 한국 전통추상화의 새로운 가능성



'Light'

성을 열고 있다. 우씨의 작업들은 한국화단을 대표하면서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대단적이고 지적인 예술세계를 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 평론가 토마스 슈트라우스는 "우제길씨는 매우 현대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한국의 전통 문화가 갖는 융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

다"고 평가했다. 우제길씨는 "지난 60여년 동안 현대적인 모습으로 한국의 전통문화가 갖는 융화의 가능성을 시범한다는 그림을 그려왔다"며 "이번 전시회는 작업과정을 돌아보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광주작가들 독일 무대에 서다

## 시립미술관, 뮌헨서 '한국현대미술특별전'

광주지역 작가들이 현대미술의 본고장 독일 무대에 선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오는 28일까지 독일 뮌헨 White Box에서 한국현대미술특별전 'All About Korea'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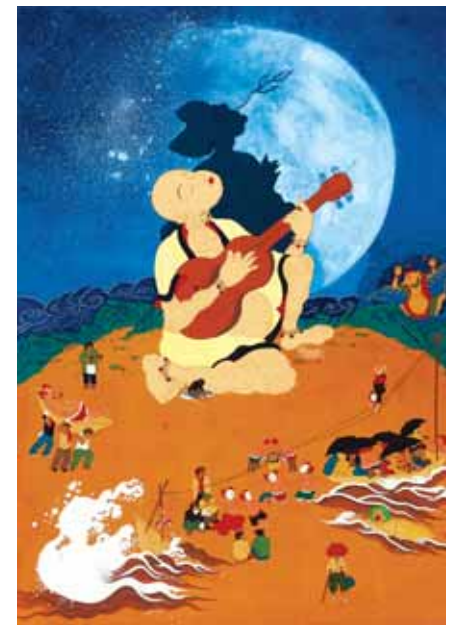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서 광주 출신의 강운, 김상연, 김진화, 김해성, 서윤경, 신호윤, 이이남, 임남진, 정은화, 최미연, 최재영씨 등 모두 11명의 작가가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 개막식에 뮌헨시장 크리스티안 우데(Christian Ude)를 비롯해 문화

부 관계자와 컬렉터, 갤러리 대표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뮌헨 전시 이후, 베를린으로 무대를 옮겨 5월25일부터 6월 말까지 순회전도 계획되어 지역 작가들이 유럽 무대에 작품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는 황영성 관장과 독일 마이클 슈츠 갤러리의 마이클 슈츠(Michael Schultz)관장과 오랜 인연이 발판이 됐다. 광주시 명예시민인 마이클 슈츠관장이 뮌헨시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임남진 작 '연가'

# 노래가 꽃 피는 '오월 광주'

## 다음달 11일 '전국오월창작가요제'

광주의 오월을 노래하는 창작곡들의 열띤 경연무대가 펼쳐진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오월창작가요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3회 전국오월창작가요제가 '노래꽃 피는 오월'

을 주제로 오는 5월 11일 오후 7시 30분 전남대 운동장 특별무대에서 개최된다.

올해 대회는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참가접수를 받아 22~26일까지 1차 음원 및 서류심사를 거쳐 총 20개 팀을 선정한다. 5월

4일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에서 2차 예선을 실시, 본선진출 10개 팀을 최종 선정하고 5월 11일 전남대에서 본선 경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응모자격은 국적, 나이 제한이 없으며 CD나 온라인 음원으로 정식 발표된 적이 없고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순수창작곡이어야 한다. 응모주제는 시대와 호흡하는 젊은 정신, 편견을 거부하는 자유정신 등이 담긴 창작곡이고 장르에는 제한이 없다. 문의 062-682-0518. /이보람기자 boram@

### 현대공인중개사

**급한 매물 단시일내 신속중개 -토지 건물**

〈토지매매〉

- 소 재 지 : 광산구 산정동
- 면 적 : 14,172㎡ (구 4,287평)
- 용도지역 : 자연녹지.
- 지 목 :잡종지
- 입지조건 :대형차량진입 가능
- 허용용도 : 공장, 창고, 병원 종교집회장(교회, 성당)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고물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복지시설(노인, 사회 근로)
- 매매조건 : 면적(분할)가능 및 가격은 상담 후 결정

〈신속 상가 건물 임대〉

- 5층 건물 - 3면이 도로
- 9월 준공 예정
- 상무지구 구영 오피스텔과 국민은행 사이
- 관장 용도 : 화원, 병의원, 사무실, 음식점, 커피전문점, 자동차 전시장, 사무실, 금융기관, 보험회사, 편의점, 기타업종

T. 062) 371-1900 , 010-2006-0115  
상무 우리빌딩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득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인 해수욕장과 선착장 그리고 최고의 워라시절이 어울린 절경의 별장지

**토지 4,900㎡(1,485평) 건물 295㎡(90평)**

캐나다산 원목가공 목조건물에 수입 창호등 최고급시설 및 내부 공기 자동제출방식의 숨쉬는 집.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매매가 : 6억**

최고의 도심속 전원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도심속의 전원주택지 전 3,700㎡(1,120평) 매가 3억 9천만원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최고의 전원주택지**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계획관리지역 남향에 도로, 전기시설, 전 2,400㎡ 정남향에 조망권 좋고 마을과 약간 떨어진 입지조건 최고!! 매가 7,200만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모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 원룸 교환

**두암동4층 원룸**

대지 324㎡  
건물 482㎡  
14세대

매매가 5억1000만원  
내·외부리모델링 용지없음

보증금 2억5100만원  
월세160만원  
월세전환시

보증금5600만원에  
월세 455만원 가능

커피전문점 또는 타점포와교환가능

☎062-267-2006

### 가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매**

- "담양" 무인텔
- 객실 : 32개
- 현 상업중
- 매매가 상담후 결정

**전남 지역 토지 구함**

- 양어정(노지)
- 염전
- 잡종지
- 학교용지(폐교)

각 토지 매수자 대기중  
※ 염전 실운영자 대기중

상무지구 랜덤피아 사거리  
010-8289-8549

###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 급매매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가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현 토지가격 450만원 정도

15억

대형식당 교회,취폐(가능)

개인사정으로 급매매 (월세도가능)

010-3701-4767

###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 시내권 및 시외순환도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설분과 연오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게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봉점 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